

[부활절 전도집회 - 둘째날] 찾으시는 아버지

[본문]: 요한복음 4장 23~24절 / 유진소 목사 / 1999

5년전에 집중시간이 겨우 2~3분 정도인 1~3학년들 앞에 두고 다윗의 '똥'이야기로 15분이 나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이야기입니다. 둘 다 냄새나고 추악하고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남에게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잡지나 신문, 소설이 죄 이야기만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는 죄가 침단을 걷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죄도 하나의 유행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죄가 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인과 인생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죄는 그저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 조화, 행복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저속함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싫어하는 죄의 모양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롭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사랑하라고 지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랑보다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가끔 행복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3백 65일 행복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서 벗어나면 뭘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쓴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 들어가 있는 놓지 않습니다. 죄의 자기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는 누가 죄를 지었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명목으로 죄인을 색출하다 보면 하루종일 죄에 대한 생각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 범인을 잡아내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덮어주고 상처를 없애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기가 오염되면 모두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

죄가 가진 자기 방어 시스템 가운데 하나는 ‘감추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있으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둘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의 자녀가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신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쫓아가서 꼬집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비유를 보면서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태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는 결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써치라이트처럼 아들의 모습을 찾아 헤메셨을 것입니다. ‘가다리는 아버지’는 곧 ‘찾아가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도 결코 씩씩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를 조금 내밀었는데 그 머리를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삶의 죄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수가성 여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 12시에 물길러 나왔습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시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아침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첫째 늦잠을 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것은 전날 늦게까지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여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말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에는 좀더 반항적인 말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인데 왜 나의 삶에 참견이냐’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시비는 마음 속에 외로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문맥이 맞지 않지만 여인의 속마음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주겠느냐 혹시 새 우물을 파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우물은 야곱때부터 쓰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묻습니다. 말을 고상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수작부리지 말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보았다’는 말입니다.

수가성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녀가 자신을 놔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그저 놔둘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설득합니다. 너의 삶의 결국은 목마름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목마름은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제 말을 그만두자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물을 쥐봐라'는 말입니다. 이 대화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때 그 여인이 엉겁결에 나온 말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엉겁결에 한 말이지만 여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많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에게 남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여자에게 있어 남편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내 삶이 허무했고 목표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에서도 만족이 없었다는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네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족을 위해 애를 썼지만 계속하여 목마름의 연속이하는 말입니다. 다섯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유와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유는 바로 갈증입니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목말라서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 어딘가로 찾아가고 움켜쥐었는데 한번도 채움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비참한 경력만 쌓인 것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대개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은 모두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아닌척 위장을 해도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재미없음과 무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게 있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코스타(KOSTA)에서 '아버지 주 나의 기업되시네'라는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설교 중에 제 눈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배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고 뭔가 위로 받고 싶지만 두려워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그 그림을 모든 순간 '아! 이것이 예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단해야 할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받고 치유받을 곳은 바로 예배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해결 받고 목마름을 채움 받을 것은 예배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상처받고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말은 '그래도 당신은 예배해야 한다. 그것 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는 것 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부끄러운 기억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해되는 것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결단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찾아온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왔건간에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울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일을 말한 이를 와보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라고 말해도 분을 내고 과거만 이야기 해도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환경은 그대로 이지만 기쁨이 샘솟듯하여 그 환경은 중요하지도 나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삶이 아름다웠던가'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역사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안아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놀라운 손이 다가와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 일으키는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